

방주 안

Within The Ark

그대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도에 관련된 시리즈들을 연구하였다, 이는 다른 교리들과 다른 믿음들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야쉬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교리들이 "더욱 더 좋은 것"임을 그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야웨의 품성을 반사하여야 하고,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적절하게 계발하고 반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이 시리즈를 계속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이 주말에 콜롬비아에서 조셀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방문하러 왔기 때문에, 지난 밤에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그 대화에서 더 큰 열성이 필요함을 실감하였다. 특히, 근래에 법정들 안에서 전개되는 것들을, 빛 가운데서 볼 때 ... 우리를 아는 자들에게 야웨의 계명들과 야쉬와의 믿음을 지켜야 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개념이 실제적인 센스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웨께서 언약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취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여러 차례 연구한 것을 알고 있다. 그 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 만큼 응답하심은, ("그 분께서 하실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잠시 후에 설명할 것이다) 그 분께서는 오직 그분의 언약 안에서 그 분과 연합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이 증명한다.

이사야 **42:6-8**;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영문) 나오게 하리라. 나는 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11**;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읽는다.

요한복음 **17:22**;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나이다.

이 성경절에서 야웨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두 가지의 유익한 점을 알 수 있다,

1. 하나가 된다. -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
2. 증거한다. -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성경절을 읽는다.

마태복음 **7:22,23**;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하리라.

이전에 여러 곳들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윗 문단의 말씀을, 그저 지력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더 은밀한 것들이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말씀들을 읽는다, 이 언약은 기독교인들인 우리가 소유한 것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창세기 17:1- 14; 아브람이 구십구 세였을 때 주께서 이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없으리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절과 2절 - 약속과 조건

5절 - 이름

6절 - 축복들

10절 - 표시 또는 싸인

13, 14절 - 조건

우리가 최근에 복음 전도와 교회 회원권에 대하여 꽤 많이 강조하였다. 이 두 개념들을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 사실상, 한 개념이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의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시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체계적인 토대 안에서, 행하므로 말미암는 구원과 의무와 교환 조건으로 영혼을 묶어놓기 위하여 추구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흥정으로 야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분을 대우하면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X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는 거둬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만일 X가 죄임을 알았다면, 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다른 죄들을 행하고 있다면, 왜 오직 그 죄 하나만을 희생하고 정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가?

야웨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행하고 나를 증거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언약이므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언약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바꿔 말하면, 야웨께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기쁜 소식들"을 전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전하지 않으면, 오직 위선자일 뿐이다. Yes,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을 취하고, 아무튼, 놀랄 만한 결론을 내리고, 말하기를, '이 의미는, 비록 이 모든 것을 그 분 자신이 창조하셨을지라도, 야웨께서는 조직과 율법과 질서를 갑자기 적대하신다.' 고 한다. 이것이 나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나쁜 표준이 아주 풍성하고, 또 이 세상이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선한 개념을 악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분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뜻이 담긴 성경 구절을 읽는다.

야고보서 2:14- 20;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자들은 그 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야쉬와 예수님의 사업을 하려고 시도한다. 초기 시대에 교회가 새롭게 잘 조직되었으나, 이 언약 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주 극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약간의 실례를 성경이 말한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읽는다.

누가복음 **9:49-50**; 요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 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9:13-17**;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 주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려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 고 하였더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키페바에게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어제 밤에 어떤 자가 나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정연하게 내가 침례를 받고 교회 멤버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 내가 그것을 비유담으로 응답하였다.

물이 가득 찬 거대한 수영장을 상상하라, 그 수영장 안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 갑자기, 수영하는 자들이 물 속에 독이 들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당장, 수영장에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입구가 오직 하나 있을 뿐이다. 돌연히, 수영장 아래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입구 쪽으로 이동하고, 또 물이 그 쪽으로 거세게 흘러갔다.

지금, 여기에서 다섯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수영장 안에 있다. 어떤 자들은 나가는 통로가 있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 통로를 찾도록 하는 소망도 없이, 물결을 거슬러서 수영하려고 시도하였다.

어떤 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

어떤 자들은 나가는 길을 찾도록 하는 희망을 가지고, 출구를 향하여 수영하였다. 이 최종적인 타입의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자들은 좁은 길을 찾은 곳을 지적하면서 서 있었고, 어떤 자들은 좁은 길을 찾아가고 있었으며, 어떤 자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이 비유담의 의미이다.

그 수영장은 세상이다, 그리고 수영하는 자들은 모든 인류들을 상징한다. 물속에 들어 있는 독은 죄이며, 결국 그 죄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모두 죽게할 것이다. 그 지진은 사람들이 출구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고, 그 출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좁고 협소하지만 안전한 길이다.

물결을 거슬러서 수영하는 자들은 수영장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영하는 자들이며, 결국 그들이 그 독이 들어있는 물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자들은 안전이나, 수영, 어느 쪽을 더 사랑할 것인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도 역시 그 독이 들어있는 물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출구를 향하여 수영하는 자들은 물결에 따라 수영하는 자들이고, 심판을 믿고 안전을 기하기 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멀리서 수영하는 자들이나,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자들보다도, 더 큰 위험에 처한 것은, 그들이 수영장 벽 측면에 맹렬하게 부딪쳐서 아주 급속히 파멸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의미는, 사탄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자들이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간 자들에 관하여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그 분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자들을 파멸하기 위하여 추적하므로, 우리가 출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행하면, 참으로 그 출구를 찾게 된다.

지금, 내가 세 종류의 타입을 말하였다. 결코 출구를 찾지 못한 자들은, 거짓 교리들에 의하여 속은 자들이거나, 유혹을 당하여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그 길을 찾아서 지적해 준 자들은 "섞인 무리다." 그들이 실지로 다른 사람들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그들 자신들이 그 길로 나가지 않았으므로, 죽게 될 것이다. 유다가 그러한 형의 사람이었다, 그가 그리스도 야쉬와께 충심으로 행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그 길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안다.

그러나, 그 길을 찾아서 나가고, 또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를 가졌으므로 비난할 여지가 없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여기가 길이니, 이 곳으로 들어가라." 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라.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 분이 그대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의 교리들을 배우면 그분을 기쁘게 헤드릴 것이다." 고 한다. 이것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올바른 접근은,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그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행하고 말한 것과 같이 시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1:1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길이고, 또 참된 길임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탈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정연하게 내가 침례를 받고 교회 멤버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은, "**No...** 그러나, 그가 무슨 이유로 침례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만일 기회가 없어서 그 사람이 침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별개 문제가 되므로, 완전히 **OK**다. 그러나 침례받을 기회가 제시되었을 때는, 쉽게 그것 자체가 해결된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참으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필요함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가르침들은 좋다." 잠시 후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 또 하나의 비유담으로 예를 들어서 말할 것이지만, 그들이 바로 독이 들어 있는 물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가게 출구를 가리켜 주기를 시도한 자들임을, 수영장을 상징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접근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그들의 생애에서 살아 있는 증언이 없기 때문에, "왜 그대가 교회 멤버가 아닌가?" 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자에 의하여 사탄이 그의 수완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 만일 그 이유가 교회 회원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 질문에 무가치한 응답을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복음 전도는 실패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

두번째, 왜 그가 침례 받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가? 라고,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미심쩍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교리들이 **CSDA** 교회의 주된 가르침들이 아니다. 우리가 교리들의 가장 필수적인 수준에 대하여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CSDA** 교회 안에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써,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전념하는 모든 것이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결과이다. 왜냐하면 신격의 품성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계명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야쉬와의 믿음이 바로 그 결과이다, 왜냐하면 야쉬와의 마음을 우리들이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죄를 이기는 개념과 연결된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1- 5;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 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새 달마다 있는 우리의 모임이 하나가 된 결과이다, 왜냐하면 달이 어두울 때에, 이 의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새로운 빛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 전부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자가 질문하기를 '내가 교회 회원이 아닐지라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문제가 될 필요가 없지만, 왜 그러한 질문이 실제로 필요하였는지 검토할 이유가 있다. 야웨와 그분의 백성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불타는 소망은, 영혼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한 불타는 소망이 없으면, 실제로 구원에 필요한 어떤 것이 없다는 확실한 표시가 된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재창조된 하늘에서 끝없는 세월 속에서 누리는 천국의 소망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 회원권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 관하여 상당 수로 연구하였다. 사실, '확실한 언약' 책 전체가 이 주제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한다. 내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있어서 이 참된 빛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에, 복음 전도자들과 멤버들의 문제를 검토한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지적하였다. 먼저 이것을 읽는다.

누가복음 **17:26-30**; 노아의 날에 일어났던 것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살았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세상에, 아주 긴 기간을 통하여 경고가 주어졌고, 그런 다음에 신속한 멸망이 이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고 기록되었다. 어떤 자들이 생각하기를, 만일 경고하는 기간이 길면, 실제로 오는 재앙이 쉽사리 눈에 보일 것이다. 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자들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의 기별을 들은 어떤 자들도 그들과 똑같이 반응한다고 내가 생각한다. 그들이 "그것이 좋은 배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이전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그냥 지나친다.

다른 자들이 "이것이 좋은 배다" 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노아가 그들을 배 안으로 초청하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싫소이다... 홍수로부터 살아 남으려면 배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배에 대한 고안을 좋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그대의 배가 아주 크니 내가 배 꼭대기에 서 있을 수 있고 또는 배의 측면을 짊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물이 상승하였을 때, 나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든 종류들의 동물들과 방들이 밀집하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으로부터 먼 곳에 내 위치를 정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있는 장소가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 말할 것이다.

극 소수의 다른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좋은 배다" 고 말하였다, 그리고 노아가 "들어 오시오" 라고 말하였을 때 그들이 동의하고 들어갔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다. 고 기록되었다, 그들이 최후로 남은 사람들로써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창세기 **7: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들을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지금, 어떤 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항상 구원받은 교리로" 적용하기 위하여 시도한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야웨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것이 "인침"이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인침받기 전에 그들의 믿음이 입증되었다. 문이 닫혀진 후에 "내가 구원받았다" 고 그냥 말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경우에 실제적인 방주, 즉 언약의 방주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한다.

첫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배의 강도를 보고 지나쳐 버린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의 유익함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 야웨께서 그들의 규칙들대로 따라야 한다. 명백한 것은, 그들이 심판 때, 전멸당할 것이다.

두번째 부류를 우리가 많이 보고 더 많이 본다... 그들이 "이것이 좋은 배다." 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홍수가 오면,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방주가 가까이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들 자신의 구원의 문을 "닫는다."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잘못이다.

어쩌면, 어떤 자들은 방주 꼭대기에서 잠시동안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이 낮아지면, 모든 것들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런 식의 이론상으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자.

창세기 7:17-24; 땅에 홍수가 사십 일 동안 있으리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물이 땅 위에 심히 널리 퍼지니 온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물이 십오 큐빗 높이로 오르지라, 산들이 잠겼고,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 남았더라. 물이 일백오십 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

창세기 7:11; 노아의 생이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십칠 일, 그 날에 모든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홍수의 물이 그저 상승하였다가 낮추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격변하는 사건이었던 것을 예언의 신의 기록들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록 방주가 견고하게 건축되었을지라도, 천사들이 방주를 붙들어서 보호하지 않았으면, 방주는 부서졌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당하는 고난이, 정확하게, 그 당시와 똑같은 것이다. 우리의 기별과 우리가 행하는 것과 죄를 이기고 승리함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들이 좋은 원칙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조직이나 그대들의 단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고 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행하는 것과 원칙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분과 함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백성들로 구원하신다, 그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그 분께서 도우실 수 있는 만큼 모두 도와주실 수 있다.

참소의 언어를 "할 수 있다"로 설명하였다. 사탄이 모든 자들을 적대하여 참소한다, 그리고 욱의 기록으로부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웨께서는 사탄이 고안하고 궁리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도하도록 허락하신다. 야웨와 함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사탄의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고 그것들로 인하여 이전 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피조물이든지 그 유혹이 아주 큰 홍수와 같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고 항거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루시퍼가 가장 큰 피조물로써 대단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진리에 소속된 자들과 함께 연합함 없이, 진리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줄곧 따르기를 시도할지라도, 야곱의 환난 때 유혹들과 시련을 견디어낼 길이 없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실제적인 육신의 위협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가장 적다고 생각한 영적인 기만들과 영적인 시험이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안전하다. 하늘을 향하여 진진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오직 참된 안전이 되는 두 가지의 참된 이유들 중의 하나는, 직접적으로 영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행함이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동기는, 야웨께서 언약을 통하여 그 분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그 분과 함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을 그 분께서 인도하시고, 변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들을 응답하셨고 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그들에게 주심은 사람들이 그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하여 디자인하신 것이다...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는 곳에 있으면, 사탄과 악한 사람들을 거슬러서 자신을 완전하게 방어할 수 없게 되고, 또 어떤 결과에 따르는 섭리에 의하여 올 수 있는 재난들을 거슬러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저주와 죽음과 둘째 사망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만이 사람을 보존할 수 있고 영생을 위하여 적합하게 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웨께서 언약하신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 분과 함께 언약하고, 또 그 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일치성을 가져야 한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에게 속한 것이다.

로마서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25-27**;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에베소서 **4:25**;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고, 야웨께서 그들을 그 분의 왕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실제적인 구원의 동기가, 비록 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결심하고 응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수여받는 것도 우리의 자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 그 분께 충실하게 응답함이 기독교인의 품성을 계발시키는 것의 일부분이다. 야웨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품성을 취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그 분과 함께 언약한 증거이다.

가장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품성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계발된다.

잠언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10**; 그 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10**절에 기록된 대로, "그 분의 성도들 안에서"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함에 따라서 야쉬와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회원권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말할 때, 방주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비유담을 기억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배 건축가들을 찬양하거나, 배가 떠다닐 때, 배 꼭대기 위에서 서 있겠다는 계획도 족하지 못하다. (어떤 자들이 이것을 계획하고 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대가 방주 자체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대가 그 분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의 백성들과 친교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야웨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친교하는 백성들을 공교롭게 구원하실 것이다.

마치는 성경 구절을 읽는다:

마가복음 **10:17-27**;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들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 고 하시니라.

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행하고,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올바른 백성들과 친구가 될지라도... 비록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식과 모든 신비들을 알고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모든 원칙들을 올바르게 실행할지라도,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야쉬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쉬와를 모시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므로, 머리가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분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 분을 따른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그 분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의미이다.